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4년 8월 제 **135-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유경춘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요셉나눔재단법인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 나섭니다’ 방문진료실 신설, 거동 불편하거나 ‘은둔 환자’ 진료



본원은 지난 1년여 전부터 실시해오던 방문서비스를 7월 1일부터 확대 개편해 방문진료실을 신설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숨어있는 환자를 적극 찾아 나설 예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방문 간호를 하는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손안젤라 수녀, 방문 진료 중인 고영초 원장, 약제실 황보신이 팀장 수녀의 방문 복약지도 장면.

지난 7월 말 경기 고양시 행주 나루터에서 팔에 아령을 묶은 60대 남성 박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확인 결과 박 씨는 한 때 세차장에서 일하다 어깨를 다친 기초생활수급자였다. 혼자 사는 쪽방 달력엔 ‘몸이 너무 아프다, 살기 싫다’고 적혀있었다. 그는 당뇨와 고지혈증, 백내장 등을 앓고 있어 방 한 칸엔 약봉지가 빼곡히 쌓여있었다고 한다.

우리 주변엔 박 씨와 같이 외톨이로 살며 힘들게 투병하는 이들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채 은둔의 삶을 살아간다. 이

런 이들을 찾아 치료를 받게 하고 정신적인 위로와 도움을 주기 위해 본원은 7월 1일 방문진료실을 신설했다. 방문진료실의 활동 반경은 현재 영등포역 쪽방촌 주변이다.

본원 고영초 원장은 “영등포 쪽방을 대상으로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 지 1년 여가 넘다 보니,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중병으로 못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런 소외된 분들에 대한 방문 진료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번에 방문 진료실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135-1호
주요
소식



방문진료실 신설

1



재단/병원 소식

6



봉사자 코너

12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18



국성회 소식

21





뇌경색과 고혈압으로 거동에 다소 장애를 겪고 있는 김상훈 환자(가명·77·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본원 방문간호팀이 반찬 나눔과 영양제 공급 등 돌봄 지원과 병원 치료를 주선해주어 고맙다며 사회사업실을 찾아 후원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현재 방문진료(간호) 대상자는 20여 명 정도로, 한 달에 약 200회 정도를 방문해 건강을 보살펴왔다. 신설된 방문진료실은 이전부터 실시해온 방문 상담과 방문 간호 및 방문 진료 등 방문 서비스를 통합해 추진하게 된다. 한진희 방문진료실장(간호사)은 “방문 진료팀은 단순히 눈에 띄는 분들만 찾아간다기보다 숨어 계신 환자를 찾아낸다는 의미에서 발굴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문진료 팀원은 모두 7명. 여성 3명에 남성 직원이 4명 포함됐다. 가능한 한 적은 인력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해 모든 팀원들이 자기 고유 업무나 다른 업무를 함께 하면서 남녀 2인 1조로 참여하고 있다. 또 수도자 방문팀이 대화와 면담을 통한 정신적 위로와 지원을 위해 본원 방문팀과 함께 또는 별도로 쪽방 주민을 방문한다.

외부 접촉 꺼리는 환자 적지 않아

오랫동안 쪽방이나 고시촌 등에서 외톨이로 살았던 이들은 방문팀이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좀처럼 얼굴을 보이려 하지 않는다. 노숙(쪽방 거주도 노숙의 한 범주)을 하게 된 근본 이유가 가정적·사회적으로 상처받고 소외된 결과, 알코올에 빠지는 등 자포자기 상태로 대인기피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도 없고, 자연스럽게 자기 건강관리도 등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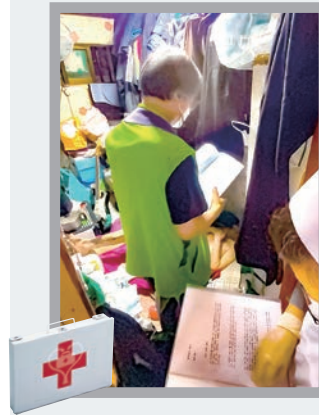
김정애 팀장(사회복지사)은 “숨바꼭질 하듯이 방문을 잠

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환자들을 체크한다. 환자 방문 시에는 먼저 혈압, 맥박, 체온, 호흡 등 기초 건강 상태를 점

그고 몸과 마음의 아픔을 숨기려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팀원들은 대상자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상호 신뢰관계(rapport)를 형성하도록 노력한다”며, “이분들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병원으로 오게 해서 어떻게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 방문팀은 매일 조별로 정기 방문을 하

[환자사례 1] 병자성사 받고 마음의 위로 얻어



대졸자인 박영식(가명·63세) 환자는 이혼 후 가정이 파괴되며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기초수급자가 됐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이 생겨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인근 쪽방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자인 형님을 돌보기 위

해 조기에 퇴원했다. 그러나 고립된 생활 속에서 수술 부위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한다며 말기 간암으로 인한 통증이 극심해져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워졌다.

박 씨는 처음 방문진료팀의 방문을 거부하다 지속적인 방문과 설득 끝에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됐고, 이후 마음의 문을 열어 고영초 원장의 방문 진료와 영양제 주사 처방을 받았다. 상태가 악화되면서 흥근표 사무총장 신부로부터 병자성사를 받고 마음의 위로도 얻었다. 본원 의료진의 진심어린 보살핌에 깊은 감사를 표했던 박 씨는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 수술했던 병원에 재입원했다 나흘 뒤인 지난 5월 말에 선종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고영초 원장의 방문 진료 모습, 어버이날 쪽방 주민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는 민광한 사회사업실장 수녀, 이웃리치를 나간 영등포역에서 노인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고 있는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팀, 쪽방주민 생일을 축하해 주고 있는 류 마리스텔라 수녀팀.

검한 다음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묻고 확인하고, 상태에 따라 의사 왕진을 요청하기도 한다.

노출이 잘 안되면서 깊은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은 언제 응급상황에 빠질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이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팀원들은 매일 '요주의' 환자들을 방문해 살펴보고 위급 시 119 신고를 하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영초 병원장은 "방문 진료팀이 왕진이 필요한 응급 환자를 보고하면 찾아가 상태를 파악하고 큰 병원에 전원할 것인가를 판단한다"며, "전원까지 안 해도 되는 환자는 건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투약과 처치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도록 권한다"고 전했다.

일단 큰 병원으로 후송해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지원도 방문진료팀의 몫이다. 한 실장은 "환자 대부분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어서 입원 치료 시 보호자 역할을 해드려야 할 때도 있고, 퇴원 후의 거처도 환자와 상의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해드린다."고 말했다.

‘약이 독이 되지 않게’ 방문 복약지도도 실시

본원에서는 이번 방문진료실 신설과 함께 담당 약사를 정해 방문 복약지도 활동도 강화했다. 방문약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종로 돈의동 쪽방촌, 그리고 주 2회씩 영등포 쪽방촌 주민을 방문해 복약 지도를 한다. 복약 지도 중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약을 정리해 주는 일이다.

요즘 건강보조제를 드는 일반 노년층도 그렇지만 쪽방 주민 역시 병원에서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약들이 여러 종류여서 제대로 찾을 수 있게 정리 보관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제때 약을 챙겨 먹지 못해 오래된 약이 쌓이고, 이 약들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환자에 따라서는 증상이 완화돼 굳이 먹지 않아야 할 약도 습관처럼 복용하게 된다. 무엇보다 함께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약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사례 2] 지속적인 방문 통해 신뢰관계 형성



김길남(가명·76세) 환자는 대장암 투병을 하며 쪽방에서 혼자 살다 암이 전이돼 식사나 대소변 처리가 어려워지자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

방문진료팀이 찾아가 처음에는 우울감과 대인기피증으로 방문을 거부했으나, 지속

적인 방문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 이후 마음을 열어 병원장이 방문 진료를 실시한 결과 전신 쇠약과 영양불균형이 극심해 투약을 하고 영양제를 공급했으나 병원 입원은 한사코 거부했다. 그러다 설사와 폐렴, 통증이 지속돼 일주일 동안 방문진료를 통해 영양제를 투여받으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사망하기 전 천주교 대세를 받은 뒤 방문팀의 주선으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다 열흘 만인 5월 초에 선종했다.



신앙심이 깊은 김상훈(가명·77) 환자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영등포 쪽방촌 사랑의집에서 진행되는 미사에 거의 매일 참여한다. 사진 오른쪽은 거동이 불편한 다른 쪽방촌 환자의 방을 본원 현장체험 신학생이 방문해 깨끗히 청소한 모습.



방문약사는 이렇게 ‘약이 독이 되지 않도록’ 약을 분류, 정리하고 복용법을 세심하게 알려주는 일을 한다.

수도자 방문 봉사팀도 마음의 건강 살피

방문진료팀이 거동 불편한 환자들의 육체적인 건강을 보살피는데 힘을 쏟는 한편으로, 수도자 봉사팀도 쪽방 주민들을 방문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숨어있는’ 환자들에게는 의료적 처치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위로와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등포 쪽방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작은자매관상 선교수녀회의 손 안젤라 수녀와 윤 아네스 수녀 등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간 정도 요셉의원 방문 간호팀과 협조해 방문 간호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의 고된 삶을 보듬고 있다.

33년 전 수도회 입회에 앞서 신림동 요셉의원에서 간호업무 등을 했던 손 안젤라 수녀는 “환자를 방문해 혈압과 혈당 체크를 해드리고, 규칙적인 약 복용과 음식 조절, 규칙적인 운동과 위생관리를 당부한다”며, “병이 있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 특히 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방치된 분들을 발견해 병원에 오도록 적극 유도한다”고 말했다.

“한 쪽방 할아버지는 손톱에 때가 끼고 길어서 여러 번 깎아드리겠다고 해도 거절하시다가 몇 주간 설득 끝에 승낙을 얻어 손톱을 깨끗이 다듬어드리자 해맑게 웃으시며 좋아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목자는 냄새 나는 양떼를

찾아가 그들의 냄새를 맡아야 한다’는 교황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경청이 마음을 푸는 최고의 약”

매주 금요일 오후에 쪽방 방문을 하고 있는 류 마리스텔라 수녀(노트르담 수녀회)와 최미화 모니카를 비롯한 여성 봉사자팀은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문대상자를 찾아갈 때 자체적으로 준비한 간식이나 요셉의원에서 마련한 두유 등을 가져간다.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찾는 집은 평균 5~6가구.

김두리 베네딕타 방문 봉사자는 “방문을 해서 얘기를 잘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분들이 경계를 풀고 마음 속에 담아둔 사연도 털어놓는다”고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 줄 때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마음이 풀리는 최고의 약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류 마리스텔라 수녀는 그동안의 방문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대상 주민들이 ▲앞으로의 희망이나 꿈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옛 생각이 나면 괴로워서 술을 마시는데 한 잔이 열 잔이 되면서 알코올의존증에 빠질 수 있고 ▲자존감이나 의지가 저하돼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문 계획에서 ▲대상자들이 미래의 꿈 또는 목표를 생각해 글로 쓰기 ▲생활 개선 의지와 자기 극복 전략 마련 ▲기록한 메모지를 부착해 자기 암시를 하고 깨우치기 ▲목표 도달을 위한 노력과 성취감을 갖고 삶의 의미를 되살리기 등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원은 앞으로 방문 상담을 더욱 체계화해 방문 간호와 진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내원을 유도할 수 있는 은둔 환자, 병원에 진료를 오면서도 상담과 대화가 필요한 환자 등으로 분류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영초 원장은 방문 진료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원 환자 지킴과 중증 환자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진료협력병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는 “방문 진료는 같은 환자를 주기적으로 자주 방문해야 해서 실제로는 가족과 같은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최선의 도움을 준다’는 선우 선생의 이념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개교 70주년 가톨릭대
요셉나눔재단
공동 심포지엄 주제발표 ②

제도와 의료의 빈자리를 메우다 - 선우경식 선생의 '전인치료'

‘쪽방촌의 성자’ 선우경식(鮮宇景植, 1945-2008)의 삶에는 다양한 수

식어가 따라붙는다. ‘가난한 자의 아버지’, ‘쪽방촌의 성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내과 전문의 과정을 밟았지만, 보장된 미래를 뒤로 하고 평생을 가난한 이의 진료에 바쳤기 때문이다. 흔히 볼 수 없는 삶이었고, 감히 따라 하기 힘든 삶이었다. 겸손한 성정 탓에 자신을 드러내는 데 익숙지 않았으나, 세상은 그를 기어코 기억했다. 여러 표창과 다큐멘터리, 전기 등은 모두 선생의 뜻을 기리고 이어가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조망 속에서도, 여전히 대답 되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다. 한국 현대 의료의 흐름 속에서 선우경식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글은 두 가지 지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어떻게 제도 바깥의 이들에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어떠한 이유에서 다른 의사와 구별되는 치유 방침을 실천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선택은 한국 현대 의료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가.



진로를 고민하다 : 직업의 길과 미국 수련

의사는 선우경식의 꿈이 아니었다. 그는 군인이 되고 싶었다. 1945년 평양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한국전쟁을 겪으며, 나라를 구하는 일에 이끌린 탓이었다. 그러나 군인의 꿈은 곧 좌절되었다. 부모님은 사람을 죽이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의사를 권했다. 그렇게 들어간 의과대학 생활은 방향의 연속이었다. ‘나는 왜 의사가 되어야 하는가.’ 공부는 어려웠고, 시험은 버거웠다. 어렵사리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다.

선우경식은 일단 미국에 가기로 결심했다. 동기 대부분이 미국행을 선택하던 시절이었다.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작은 희망과 함께 선우경식은 미국을 향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 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선우경식은 일주일 동안 단식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18년의 고민에 마침표를 찍었다. ‘돈 안 받는 의사가 되면 되겠구나.’ 보통의 의사가 될 수 없어 직업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순간이었다. 이렇게 선우경식은 비로소 의사라는 ‘성소’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제도의 빈자리를 발견하다 : 강원도 정선군과 서울시의 무의촌

선우경식은 귀국 후 강남성심병원 내과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쁜 일상에서도, 이미 발견한 ‘다른 의사’의 가능성은 선우경식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1982년, 그는 석 달의 휴직계를 제출했다. 목적지는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성프란치스코의원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다. 의료기관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했고, 문턱 역시 더욱 낮아져야 했다. ‘돈 안 받는 의사’의 길은 어쩌면 여기에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선우경식은 곧 도시 안에도 또 다른 ‘정선’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관악구 신림동 ‘사랑의집’에서 의료 봉사를 시작한 덕분이었다. 도시 빈민의 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빈곤은 질병의 원인이 되었고, 질병은 빈곤의 원인이 되었다. 몇 년이 지나고, 그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다. 병원을 지을 수만 있다면, 좀 더 안정된 형태로 무료 진료를 이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의 꿈은 뜻하지 않은 계기로 현실이 되었다. 요셉의원의 설립이었다.

제도의 빈자리를 메울 토대를 마련하다 : 요셉의원

선우경식이 미국과 강원도 정선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을 거쳐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안, 신림동 난곡에는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이하 난합)이 만들어졌다. 진료는 의료 봉사에 맡기고, 관리는 난곡 주민이 주도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의료 봉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 난합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병원을 짓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선우경식을 비롯한 6개 지역 대표가 모여 요셉의원을 설립했다. 원장은 선우경식이 맡았다.

시간이 지나며, 의료협동조합 병원으로 시작한 요셉의원의 성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989년 도시 지역 자영자 의료보험이 개시되면서, 전 국민 의료



박승만

가톨릭대의대
인문사회이학과 조교수

보험 시대가 열린 결과였다. 병원 운영의 방향은 재설정되어야 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조합비와 의료보험료를 모두 부담할 이유가 없었다. 오랜 고민 끝에, 선우경식은 요셉의원을 자선병원으로 전환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에도 여전히 제도 바깥에 놓인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선우경식은 제도의 빈자리를 메울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새로운 치유의 방법을 모색하다 : 요셉의원

요셉의원에서 선우경식은 치유의 폭에 더하여 깊이를 더하고자 했다. 요셉의원에서는 필요할 경우 환자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하고 숙소를 마련해주었다. 왜였을까. 의식

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서글픈 현실 앞에서, 선우경식은 진료할 안팎을 부지런히 오갈 수밖에 없었다.

선우경식은 의식주의 마련에서 더 나아가, 자활 그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자의 자활을 제도화하기도 했다. 알코올은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을 가속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선우경식은 목동의집, 필동재활센터, 고창요셉의집 등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사회로 되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요셉의원은 이렇게 질병 치료에 더하여, 알코올 중독과 빈곤, 질병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알코올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공동체가 되었다.

선우경식의 자리

다시 서론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한국 현대 의료의 흐름 속에서 선우경식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요컨대 그의 삶은 제도와 의료의 빈자리를 메우는 분투의 연속이었다. 명문 의대를 졸업하여 미국에서 수련받은 내과 전문의에게, 장미빛 삶은 약속된 내일이었다. 그러나 선우경식은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선우경식은 의사의 부재와 제도의 빈틈이 중첩된 그림자 속에 닿을 내리고, 환자에게 음식과 옷가지를 내려주는 삶을 선택했다.

그렇게 아십 년의 시간을 보내고, 선우경식은 은퇴를 준비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사람을 찾는다고 말했다. 어쩌면 그것은 떠나지 않으려는 핑계였다. 병원 운영을 넘긴 뒤에도, 재활 공동체를 마련하고 제도를 기다렸다는 그였다. 요셉의원을 떠나서도 또 다른 요셉의원을 만들겠다는 계획 속에, 휴식의 자리는 없었다. 결국 그는 살아생전 요셉의원과 이별하지 못했다. 오직 죽음만이 그를 돌아 세울 수 있었다. 2008년 4월의 일이었다.

그러나 선우경식의 죽음은 요셉의원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와 함께했던 이들, 그를 뒤따르고자 했던 이들이 한데 모여, 뜻을 이어간 덕분이었다. 안타깝게도, 그가 마주하고 부딪혔던 현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하다. 제도는 지금도 빈틈으로 가득하고, 병원은 전과 같이 인간이 아닌 질병만을 다룬다. 선우경식의 죽음으로부터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그를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이다. +



요셉나눔재단 & 요셉의원 NEWS 2024.06~08

재단 기념사업으로 첫 해외 의료봉사 실시 '필리핀 빈민촌 환자 600여 명 진료하고 교감 나뉘'



첫째 날 의료봉사 출발 전 필리핀 요셉의원에서(2024년 8월 16일).

요셉나눔재단은 선우경식 기념사업의 첫 해외 의료지원사업으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외곽 사와타·아세로 지역 빈민촌을 찾아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5개 진료과(내과·신경외과·정형외과·영상의학과·치과) 전문의와 의대·치대·약대 학생, 재단 소속 직원과 봉사자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된 이번 의료봉사단('We Are One')은 고영초 원장의 지도 아래 필리핀 요셉의원 봉사팀과 함께 600여 명의 빈민촌 환자를 진료하고, 이들과 깊은 교감을 나눴다.



도착 직후 필리핀 요셉의원에서 거행된 성모승천대축일미사(2024년 8월 15일).

서울 요셉의원과 필리핀 요셉의원의 공동행사

봉사에 앞서 결성한 재단 봉사단의 영문 별칭 'We Are One'은, '선우경식 선생이 서울에 설립한 요셉의원과 최영식 신부가 필리핀에 세운 필리핀 요셉의원은 하나라는 의미로서,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도 김다솔 원장신부를 비롯해 에블린 박사 등 전문의 두 명과 간호팀 두 명, 통역 다섯 명 등 9명의 스태프와 기타 통역 및 일반 봉사자 등 모두 20여 명이 참여해 두 요셉의원의 공동 행사로 치러졌다.

이번 제1기 봉사단 단장으로서 전체 일정을 이끈 홍근표



미사에 이어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 김다솔 필리핀 요셉의원 원장신부가 현지 상황과 앞으로 진행될 의료봉사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2024년 8월 15일).

재단 사무총장 신부는 “이번 기념사업은 특히 선우경식 선생을 사표로 삼아 의학과 약학을 공부하는 여러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를 시작으로 해마다 We Are One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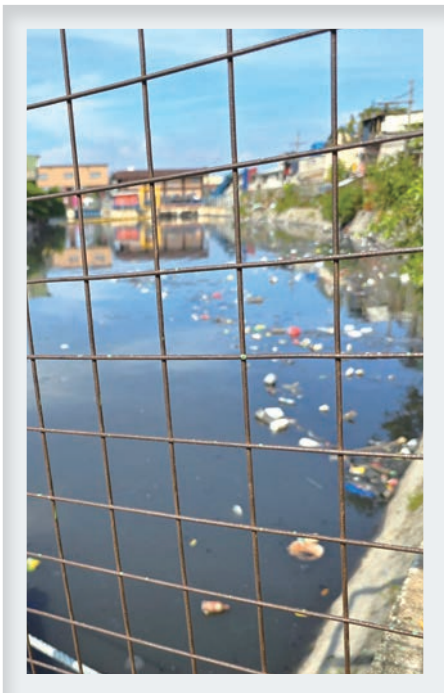
홍 사무총장 신부는 15일 도착 직후 필리핀 요셉의원에서 집전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강론에서 “이제 3박4일 일정을 시작하면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고 아울러 요셉 성인과 하늘에 계신 선우경식 선생님 및 최영식 신부님께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도록 요청하자”고 말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과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하느님

께 함께 기도드리자”고 덧붙였다.

미사 후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 일행은 선우경식 원장과 요셉의원의 이야기가 담긴 짧은 슬라이드 영상과, 2013년 1월 필리핀 요셉의원 개원 소식을 전한 CPBC 뉴스 영상을 보며 이번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다솔 필리핀 요셉의원 원장신부가 이곳 요셉의원에서 펼치는 여러 활동과, 주변 빈민촌의 상황, 주민들의 생활상과 이튿날부터 진행되는 의료봉사 일정 등을 소개했다.

진료소 찾은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 갖기도

16일 오전 6시 새벽미사 참례로 일정을 시작한 봉사단은 숙소인 필리핀 요셉의원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빈



폐수와 쓰레기로 오염된 사와타 지역의 하천.



사진 위는 진료 첫날 치과 치료를 받기위해 대기 중인 환자들. 사진 아래는 초음파로 심장병을 진단하고 있는 양현숙 교수.

민촌 사와타 지역으로 이동 진료를 나갔다. 봉사단원을 비롯해 필리핀 요셉의원 직원과 봉사자, 현지 본당 소속 봉사자들이 참여한 오전·오후 진료에서 봉사팀은 모두 27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차로 10여 분을 이동해 열악한 빈민촌인 아세로 지역을 찾아갔다. 이곳은 이전 사와타 지역에 비해 이동진료 홍보가 많이 돼서 오전과 오후를 합해 모두 33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틀간의 봉사에서 박상우 치과원장은 치대생 두 명의 보조를 받으며 정열적으로 어린이 발치 등 진료를 했고, 양현숙 교수(심장내과)는 직접 초음파 장비를 가지고 와 아동과 성인들의 심장병 유무를

판별했다. 영상의학팀은 필리핀 요셉의원의 이동 방사선 차량을 이용해 내과와 외과 환자 진단을 위해 39건의 엑스선 촬영을 했다. 이중백 방사선사가 촬영을 하면 김민정 교수(영상의학)가 이를 바로 판독해 진료를 도왔다.

필리핀 빈민 환자들은 건강 검진이 여의치 않은 탓인지 아픈 곳이 없어도 ‘건강 검진 차원에서’ 엑스선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툼툼이 손이 비는 봉사자들은 진료소를 찾은 현지 어린이들과 놀이를 함께 하며 즐거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다솔 원장신부는 진료 기간 동안 의료진과 지역 환자들을 분주히 연결하는 등 전체 일정 조정을 위해 구슬땀을 쏟았다.



아세로 지역에서의 이동 진료 모습과, 이채혁 신경외과 교수가 수술 치료를 하는 장면. 이 교수는 지방종 수술을 많이 했다(사진 아래).

이동 진료 엑스선 차량 앞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포즈를 취한 이중백 방사선사, 박영서 청년봉사단원, 김민정 영상의학 교수(왼쪽부터). 민광한 수녀가 어린이들을 껴안고 있다. 사진 아래는 사와타 지역 이동 진료소 모습.



전문의 봉사단원 진료장면. 왼쪽부터 이세원 내과 교수, 김용민 정형외과 교수, 에블린 박사(소아과), 고영초 원장(신경외과).



“봉사를 통한 나눔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

고영초 원장은 이번 의료봉사에 대해 “4개월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진료진을 꾸리고 봉사팀을 구성하느라 좀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행히 진료 환경이 열악함에도 여러 전문의와 지원팀, 학생 봉사팀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었고 모두가 봉사의 기쁨을 만끽해 내년에는 더욱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다솔 원장신부는 의료봉사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18일 아침미사 강론에서 “당신의 삶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봉사를 통해 나의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

는 것”이라며, “이번 봉사는 앞으로 여러분의 삶 안에 바로 오늘 이 순간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근표 봉사단장은 미사 말미에 이번 의료봉사 참가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와 함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참가자 모두 내년을 기약하며 뜨거운 박수로 서로를 격려했다.+

[표] 제1차 요셉나눔재단 필리핀 의료봉사단 명단

단장	홍근표 신부 (요셉나눔재단)
의사	고영초 원장 (요셉나눔재단)
	김민정 (세브란스 영상의학)
	김용민 (경찰병원 정형외과)
	박상우 (김포 더맑은치과)
	양현숙 (건대병원 심장내과)
	이세원 (이대목동병원 내과)
이채혁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방사선사	이종백
청년봉사단	강서현 (덕성여대 약대)
	권신영 (연세대 의대)
	김원혁 (연세대 의대)
	김주연 (고려대 의대)
	박영서 (연세대 의대)
	양동호 (치과대)
	윤슬기 (고려대 의대)
	임진하 (치과대)
	정민주 (숙명여대 약대)
	탁가현 (연세대 의대)
봉사자	김형범 (태영인쇄 대표)
	노준철 (변호사)
	전영화 (태영인쇄)
직원	민광한 수녀 (사회사업실장)
	신혜림 (기록관리팀장)
	이승덕 (전산실장 겸 자원봉사팀장)
	전향숙 (필리핀요셉의원 사무국장)



8월 16일 요셉나눔재단에서 필리핀요셉의원에 초음파 장비를 전달하는 기증식 장면. 사진 아래는 어린이들과 함께한 홍근표 봉사단장.



노준철 변호사가 어린이들과 율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왼쪽). 오른쪽은 사탕을 나눠주는 홍근표 단장.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포즈를 취한 의료봉사단(2024년 8월 15일).

‘WE ARE ONE’ 첫 번째 해외 의료봉사를 마치고

“주님 안에 하나되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김원혁

연세대의대 의예과 2학년

요셉의원으로 떠나는 봉사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8월15일 새벽, 의사선생님들을 포함한 봉사자들은 필리핀과 한국 국기, 그리고 이번 봉사의 슬로건 ‘WE ARE ONE’(우리는 하나)이 새겨진 단복을 입고 필리핀으로 출발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한 봉사단은 먼저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올렸습니다. 이날 복음에서, 천사의 아픔을 받은 성모님께서서는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미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다”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사를 집전하신 홍근표 신부님은 이번 봉사 여정의 목표로서 ‘미천한 이’가 곧 우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강론

말씀을 듣고 저는, ‘우리가 도와주러 온 이곳의 주민들이 바로 미천한 사람들 아닌가? 어떻게 미천한 사람이 미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마주한 빈민들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비천하다고 칭할 만했습니다.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해 필리핀 요셉의원 숙소로 이동하는 길에서, 저는 영등포 쪽방이 한없이 이어진 듯한 빈민촌을 보았습니다. 누더기처럼 기워 만든 판잣집들에, 땅 위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넘실거리며, 그 사이로 썩은 강이 하늘을 검게 비추며 흘러갑니다. 그런가 하면 하수도가 땅 위로 부끄럼 없이 드러나 보여, 이따금 보폭이 짧은 아이들이 빠지곤 했습니다.

누구나 이 광경을 보면 마땅히 그 마음이 동정심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올린 첫 미사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빈민들을 위해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그러나 진료를 시작하고 이곳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을 배워와 서툴게 인사를 건네주시던 환자분, 장비가 부족해서 치료를 못 해 드렸어도 웃는 얼굴로 고마워하던 노인분, 제가 더워 보였는지 아이스크림을 가져다주신 할머니...이들은 제 머릿속에서 마치 가난함의 형상과도 같이 비루한 모습으로 떠오르던, 그래서 막연히 동정심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봉사단이 직접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찾아가 만난 사람들은 그 속에 저와 똑 닮은 영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음식도 나눠 먹은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특히 저희가 찾아가자 너무나도 즐거워하던 어린아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다는 달려와 조르고, 처음 보는 사람과 손뼉을 부딪치러 오기도 하는, 오히려 한국 아이들보다도 더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던 아이들. 제 단복에 적힌 ‘WE ARE ONE’을 즐겁게 외치던 아이들과 교감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미천한 이’는 다름 아닌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셨고, 그분을 편견 없이 품어 주신 성 요셉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강생하셨음을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겸손을 갖추고, 다른 미천한 자들이 나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인간임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피어남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미천한 사람으로서 미천한 이를 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우경식 선생님께서도 바로 이런 깨달음으로 평생을 봉사하며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봉사는 ‘WE ARE ONE’, 곧 하나 됨의 체험이었습니다. 영등포 요셉의원과 필리핀 요셉의원이 하나 되고, 봉사단과 필리핀 주민들이 하나 되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경험을 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원의 첫 해외 진료 봉사가 성공적으로 끝마쳤음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귀중한 사업이 이어져, 선우경식 선생님과 필리핀 요셉의원의 설립자이신 최영식 신부님의 뜻이 더욱 완전히 이루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부터 요셉 의원에서 봉사 중인 김원혁 요셉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를 얻어, 필리핀



희망브리지 지원으로 낡은 의료장비 교체 의료 취약계층 건강검진 효율성 크게 높여

본원은 지난 7월 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대표 송필호)'가 주관하는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진료사업'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낡은 진단용 엑스(X)선 촬영 기기와 초음파 진단기 및 진단검사 장비를 새로 교체하고, 진단용 의약품과 의약 소모품을 상당량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3억 원 가까운 희망브리지 지원금으로 의료장비를 교체함에 따라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 검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



희망브리지 지원금 전달식 장면. 맨 왼쪽은 본 재단 홍석만 사무국장. 아래 사진은 지원금으로 구입 예정인 의료기기.



써, 감염병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 질환의 악성화를 예방하는 한편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추가 의료 지원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로,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 조직이다. 긴급구호, 구호지원, 주거지원, 재난교육, 안전지원, 재난 위기가능 지원사업 등 재해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쪽방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분들이네요” 오금고·방산고 봉사동아리, 용돈 모아 생필품 전달

지난 8월 13일과 14일에는 각각 서울 오금고와 방산고 학생 봉사팀이 본원을 찾아 생수 등 생필품을 후원하고 쪽방촌을 둘러봤다. '오금고 봉사동아리' 학생 7명(1, 2학년)은 후원금을 모아 본원에 생수(6리터 72병, 500ml 460병)와 물티슈 5상자, 죽 6상자를 보내왔고, 방산고의 '방산봉사단' 학생 5명(1학년)은 용돈을 아껴 모은 돈으로 생수와 휴지, 과일, 과자 등을 가득 사서 전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왔다. '오금고 봉사동아리' 대표인 최승희 학생(2학년)은 “쪽방촌 분

들을 도와드리고 싶어하는 친구와 후배들이 함께 기금을 모았고, 돈을 기부하는 것보다 필요한 물품을 고르고 사서 전해드리는 것이 저



오금고 봉사동아리팀

희 마음을 잘 전해드리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 “정상인들도 견디기 힘든 무더운 여름에 비좁은 쪽방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요셉의원 소개 동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은 “요셉의원을 설립하신 선우경식 선생님이 암 투병 중에도 노숙인을 진료하시는 모습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처음 둘러본 쪽방촌과 주민들 모습을 보고 “나중에 스스로 돈을 번다면 가난한 분들을 위한 후원도 하고 봉사



방산봉사단팀

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튿날 방문한 '방산봉사단' 노승민 학생(1학년)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사회공헌단체 활동 모

습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가 고교에 들어와 뜻이 맞는 친구들이 생겨 목 사님께 후원할 만한 곳을 여쭙보니 요셉의원을 추천하셨다"고 전했다. 이 학생들 역시 본원 소개 동영상을 보고 노숙인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고, 이분들을 위해 헌신한 선우경식 선생께 감동했다고 밝혔다. 노승민 학생은 쪽방촌 노숙인들을 '그냥 대충 사는 분들'이라고 치부했으나, 막상 와서 쪽방촌을 돌아보니 그분들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방문한 학생들 대부분은 기회가 되면 그리고 나중에 자립을 하게 되면 봉사와 후원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실천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상영재단, 지난해에 이어 쌀 500kg 지원

해마다 소외계층 어린이와 부녀자,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기부금과 쌀 등을 후원해 오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상영재단(이사장 정혜선)이 지난 7월 24일 본원에 쌀 500kg(시가 150만 원 상당)을 보내왔다. 본원은 매주 목요일 150명 내외의 노숙인에게 점



심을 지원하는 목요식사나눔에 이 쌀을 활용할 예정이다. 상영재단은 본원에 매년 1500만~2000만 원의 현금 기부와 함께 지난해 말부터 다량의 쌀도 후원해 오고 있다.

쪽방촌 향기

'생똥맛은' 코로나

“그 세 시간 남짓 시간을 위해 나는 깨어있어야 하고, 소홀하지 말자는 나의 다짐이 매년 필요하다.
‘그저 영화 한 편 보여드리는 일’이란 생각에 편승될까 스스로 긴장하기도 한다”

마스크를 채 다 벗지도 못했는데 코로나가 더 세계 다시 유행하고 있다. 2020년 2월 <고령화가족>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2022년 11월 <굿 앤 바이>로 다시 시작한 <요셉의원 영화포럼>은 방식을 달리해 <영화 상영>으로 이름을 바꾸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감과 나눔이 가능했던 자연스러움은 회복되지 못하고, 코로나 이전의 활력이 회복하지 않아 애를 쓰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와 씨름하는 사이 요셉의원 시스템과 사람도 많이 바뀐 거 같다. <영화상영>의 참가자들도 거의 새로운 얼굴들이다. 적잖은 시간이 지났지만 영화를 고르는 것도 쉽지 않고, 주제 선정도 아득하다. ‘그냥 재미나는 영화 한 편 틀면 되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영화가 나에게 말을 걸지 못하고, 영화가 거는 말에 내가 공감하지 못하면 세 시간 남짓한 긴 시간은 하품하는 시간이 된다. 생명력을 상실한 영화 속 이야기는 시시하고 지루하다. 영화와 참가자들 사이에서 거간꾼 역할을 하는 진행자의 말 또한 뜬금없고 생똥맛다. 나를 애를 쓰지만



이정규

본원 영화포럼 진행자
영화피정 전문가

잘 안된다. 첫 마음을 기억해 내려 애쓰는 사이 일 년이 훌쩍 넘었는데, 더욱 강력해진 코로나가 시나브로 다시 부활하고 있는 모양이다.

2013년에 일반인 대상으로 진행한 영화피정에 참석하셨던 수녀님이 피정 마지막 날 내게 ‘요셉의원의 고객이 기도 한 환자들과 주변 형제들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이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채워주고

싶다’며 봉사를 제안하셨다. 흔쾌히 받아들이고 바로 다음 달인 2014년 1월부터 시작한 영화포럼이 어느새 10년이 넘었나 보다.

나보다 수녀님의 열정이 더 컸다. ‘허기’에 두 종류가 있다면, 당신께서는 몸이 고픈 것을 채워 주시고, 영(靈)이 고픈 것은 영화포럼으로 채워주고자 나를 불러들인 수녀님은 영화포럼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셨다. 그날만큼은 참가자들 모두가 귀빈처럼 호사를 누렸던 거 같다. 종이우산을 꺾고 초록색 허브로 한껏 멋을 낸 음료수와 정갈한 간식들을 예쁘게 장식하고, 따



코로나 유행에 대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강화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함에 따라 본원에서도 7월 초부터 환자 보호를 위해 직원과 내원 환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손소독을 강화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는 8월 말까지 유행하고, 치명률 역시 계절독감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으나, 고령자가 많고 체력이나 면역력 등이 취약한 쪽방 주민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 예방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고영초 원장은 “직원들은 아무래도 한정된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연이은 감염 위험이 있어 사무실에서나 경당에서 미사 볼 때 그리고 가능한 한 전철을 탈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고 말하고, “직원들의 감염을 막는 것이 곧 환자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스크는 특성상 외부로부터의 감염

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전파를 막는 효과가 더 크고, 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세정제 등으로 손씻기를 철저히 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하고 정겨운 말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맡아 주셨다. 모든 것을 정성껏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영화포럼은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의자가 모자라 보조의자를 펴곤 했다. 참가자들도 참으로 다양했다.

시간이 갈수록 요셉의원의 영화포럼은 내게도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었다.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었다. 한 마디로 ‘그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아니까!’였다. 삶 안에서 체험된 현실과 만나지 못하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으려 꽤나 애를 썼던 것 같다. 물론 참가자들 중에는 전직 교수, 시인, 은행가, 사업가들도 있었지만 자기 이름도 쓰기 힘들 만큼 어려움만 겪으며 살아온 분도 있었다. 독일어, 영어, 일어에 능통한 사람도 있어 모처럼 자막 없이 영화를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하는가 하면, 한글이 어려워 자막 영화가 미안한 분도 있었다. 하지만 영화포럼 시간에는 어떤 것도 소통과 공감과 자아를 발견하고 말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누구나 쉽게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이 없는 방법이 최선이였다.

사람을 성숙하게 지혜롭게 하는 스승이 고통인 것은 확실하다. 그저 아프고 쓰리게만 했던 고통과 그것이 품은 서러움과 분노는 영화포럼과 만나면서 너그림과 공감과 순수가 되기도 한다. 눈과 귀로, 살과 가슴으로 들어와 나와 하나 된 영화 속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생기고 즐거운 일이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내 이름 석 자를 말하는 일.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다. 한 달에 한 번 부르는 내 이름에 응답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에 귀 기울



이며 조금씩 마이크에 익숙해진다. 마이크로 크게 확대되어 나가는 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나의 느낌과 생각, 즉 나를 말하면서 위축되어 있는 내 속의 나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경험하기도 했던 거 같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나는 물론 수녀님과 봉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은 영화가 생생하게 들려주고 세밀하게 보여주는 삶의 진실 안에서 영적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로 위안과 친밀함을 공유했다. 산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살아 낸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영화의 말을 내가 받아서 다시 참가자들에게 전달한다. 어떤 처지의 삶도 감동하지 못할 삶이 없다. 그 안에 우리들의 만남이, 우리들의 삶이 있음을 공유하며 잠시지만 기적같은 시간을 누리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가인원 5명을 넘기기 힘든 영화상영 시간. 코로나 이전의 열정이 다 사라진 거 같지만 그래도 어느새 개근하는 학생(?)도 생겼다. 그중 누구도 무료하고 심심해서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만 무엇인가를 찾아 나선 길. 그 세 시간 남짓 시간을 위해 나는 깨어있어야 하고, 소홀하지 말자는 나의 다짐이 매번 필요하다. ‘그저 영화 한 편 보여드리는 일’이란 생각에 편승될까 스스로 긴장하기도 한다.

영화포럼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선물 주는 행사장 가기를 마다하고 왔다고, 선생님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의기양양하던, 제주에서 오는 우리 영화 선생님 최고라며 추켜세우던 그 마음들이 아직 다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코로나라고? +

환자스토리



미화원 일하다 뇌경색으로 수급 생활하는 이광규 환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만 바랍니다”



“뭐 특별한 욕심이나 바램은 없습니다. 그저 몸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본원에 찾아와 진료를 받고 있는 이광규 씨(65)는 평생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10여년 전 뇌경색으로 왼쪽 마비가 오면서 장애 등급을 받고 수급생활을 하고 있다.

“뇌경색 약은 정기적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타고, 요셉의원에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피부과와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넘어져서 어깨를 다쳤는데 통증이 가시지를 않아서 늘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 광주가 고향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부친은 경비 일을 하고, 모친도 일을 나갔다. 5남매 중 셋째인 그는 ‘학교 다니기가 싫어서’ 중간에 그만뒀다. 청소년 시절을 ‘백수’로 보낸 그는 그러나 친구들과 어울려 불량 청소년 노릇은 하지 않았다. 술을 배우지 않아 음주는 하지 않고 담배는 피웠으나 10년 전 뇌경색이 오고 나서 끊었다.

영등포 쪽방촌에 들어올 때는 20세 무렵. 쪽방에 세를 언

바깥 청소를 하다 보니 눈비 올 때가 가장 힘들었다.

“눈비가 많이 올 때는 건물로 들어가는 손님들이 계단 같은 데서 미끄러지지 않게 항상 물기를 치워야 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가끔 지나가는 손님들이 수고한다고 하면 고맙고, 격려가 됐지요.”

63빌딩에서 일하던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거품이 나며 침을 흘리고, 왼쪽 손이 움직이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옆집 사람이 119를 불러 병원에 가보니 급성 뇌경색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왼쪽 다리와 손 일부에 마비가 와서 일을 그만두게 됐고, 장애 수급을 받았다. 그는 젊은 시절 한 여성과 만나 결혼했으나,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2년 정도 있다 헤어졌다. 형이나 누이들과 자주 만나지도 않는다.

“형제들도 바쁘고 힘들게 살다 보니 서로 돕기가 어렵지요. 그나마 일 년에 한 번 정도 형님 댁에 가서 부모님 제사는 함께 모십니다.”

SH공사에서 마련해준 신정동의 빌라에서 살고 있는 그는 요즘같이 더울 때는 지하철을 타고 더위를 식힌다고 한다. 가끔 동네 가까이 있는 교회에도 나간다는 그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서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며, “하루하루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만을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

봉사자 코너

2주마다 저녁 때 노숙인 찾아 봉사하는 ‘연대의청’ 조한혁 대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노숙인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 봉사자들이 도시락이나 생필품 등을 나눠주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나누는 물품도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얼린 생수, 겨울철에는 손을 녹일 수 있는 핫팩 등 다양하다.

본원 역시 일찍부터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이런 현

개 팀을 운영하면서 아웃리치를 강화했다. 이 가운데 연세대 의대와 간호대 연합 봉사동아리인 ‘연대의청’ 팀은 올해부터 2주에 한 번씩 저녁시간 현장봉사를 맡아 영등포 쪽방촌 주변 노숙인들에게 따스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연대의청 조한혁 대표(의예과 2학년)는 바쁜 중에도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해 특히 본원 사회사업실의 기대를 모

장봉사(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실시해 왔다. 최근에는 방문 서비스 비중을 높이고 사회사업실을 중심으로 몇





연세대 의대와 간호대 연합 봉사 동아리 연대의청의 아웃리치팀. 가운데가 조한혁 대표.

고 있다.

“현재 아웃리치 봉사에는 여섯 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저는 매번 참여하고 매 봉사마다 우리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서 봉사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웃리치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직접 밖으로(out) 현장을 찾아 나서는 행위를 말한다. 아웃리치가 필요한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사람은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도움을 요청할 상황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복지 분야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조 대표는 “아웃리치 활동에서는 도움을 받는 분을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그분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늘 명심하며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활동 반경은 요셉의원 주변으로, 부근 노숙인들에게 빵과 두유를 전달한다. 한 번 현장봉사를 나갈 때마다 마주하는 노숙인들은 대략 30명 정도. 저녁 8시쯤 나가면 9시 가까이 돼서야 요셉의원으로 돌아와 봉사가 마무리된다.

“노숙자분들의 기분이나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 저희가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먼저 말을 걸어주시면 약간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해 긴

대화를 못 하는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조 대표는 현장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음식물을 전해 드리면 대부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들을 하신다”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작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에는 요셉의원 사회사업팀으로부터 거동이 어려운 쪽방 주민을 직접 찾아가 간단히 대화도 하면서 건강을 확인해 보라는 주문을 받았다.

“직접 쪽방 안을 들어가 보니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생활하시는 열악한 환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거나 경계를 하시다가 저희가 예의를 갖춰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건네니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어서 약을 꼬박꼬박 잘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봉사를 하면서 조 대표는 노숙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일단 노숙인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마음과 사회적 관심도를 증가시키는 게 필요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특히 무더운 여름이나 혹한기를 미리미리 대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실천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의예과 2학년으로 내년엔 본과로 진학하는 조 대표는 현재로선 정신과나 안과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앞으로 의사가 되면 선우경식 선생님만큼은 아닐지라도 환자를 최우선에 두고 진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고, 나중에 국내외 의료봉사를 나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

후원의 손길



첫 월금 후원한 박 데레사 씨

“주님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지난 6월 초 한 후원자가 첫 월금이라며 148만 원을 본원에 기부했다. 박 데레사라고 이름을 밝힌 후원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랐을 뿐”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몇 년 전 갑자기 몸이 아파 한동안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늘 속에서 살아가다가 몇몇 인연들을 통해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삶이 나아지고 기쁨을 얻게 됐다”고 전했다.

사범대학에서 컴퓨터 교육을 전공하고 강사 등을 하다 컴퓨터 디자인을 공부한 박 후원자는 7.8년 전 회사에 출근하다 갑자기 땀을 엄청 흘리며 전철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공황장애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정신적인 ‘공야

속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4남매 중 맏이인 그는 중학교 때 부모의 이혼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이 나이가 들어 점차 부풀러지면서 '마음의 항아리가 깨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려서부터 성당에 다녔던 그는 하느님에 대한 원망이 커서 한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았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이런 거라면 별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 시기에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하느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놀랍게도 오른쪽에서 빛이 환히 비추면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

“그때 제 상황을 호소하면서 기도했었는데, 예수님은 딱 세 마디를 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제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치유된 거예요.”

그때 이후 박 후원자는 하느님께 기도를 하면 그때 그때 답을 주신다고 전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답을 주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통해 답을 해주셔서 정말 놀랐어요.”

이번에 직장을 갖게 된 것도 기도를 통해서였다. 몇 년 동안 은둔생활을 하던 그는, “하느님, 이제 친구도 만나고 싶고, 일하고 싶습니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 그리고 생각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도 막 박 후원자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다며 일자리 하나를 소개해 줬다.

“그때 ‘직장을 주시면 첫 월급은 하느님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첫 월급을 탔을 때 기도 중에 ‘그때 약속했던 것’을 얘기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가장 낮고 가난한 사람에게 해주는 게 당신에게 해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소통’이 있던 뒤 핸드폰을 켜고 유튜브를 보려고 하는데 모니터 맨 위에 요셉의원 관련 다큐프로그램이 나오더라는 것. 그때까지 요셉의원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던 그는 프로그램을 보고 ‘이게 하느님의 뜻인가 보다’고 생각하고 기부를 결심했다. 사실 이런 방식의 소통은 자주 있었다고 했다.

“월급을 모두 기부해서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마음은 참 기쁩니다. 그리고 요셉의원에서 매주 월요일 후원자들을 위해 미사를 드리신다고 해서 감동 받았고요. 요즘엔 하느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매일 매일 성경 공부를 하며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 (2024년 6월~7월)



■ 요셉나눔재단

● 강남용 ● 강민주 ● 강서현 ● 강수아 ● 강중화 ● 고수경 ● 고정은 ● 구민정 ● 권구종 ● 권신영 ● 권혜진 ● 김강수 ● 김건열 ● 김다솜 ● 김미라 ● 김미옥 ● 김미카엘라 ● 김민정 ● 김보영 ● 김용민 ● 김원혁 ● 김주연 ● 김주연 ● 김주영 ● 김한수 ● 김형범 ● 김혜경 ● 김혜선(데레사) ● 나다연 ● 나윤영 ● 나종진 ● 노준철 ● 류성옥 ● 민경민 ● 박병숙 ● 박수경 ● 박영서 ● 박예스란 ● 박인철 ● 박정숙 ● 박종철 ● 박효진 ● 손정애 ● 송덕희(카타리나) ● 안수진 ● 안용찬 ● 양상철 ● 양수영 ● 양현숙 ● 오상순 ● 유경보 ● 윤슬기 ● 윤종빈 ● 윤희정 ● 이금원 ● 이미숙 ● 이미정 ● 이석동 ● 이세원 ● 이세윤 ● 이시연 ● 이용희 ● 이원현 ● 이유진 ● 이은자(세실리아) ● 이인혜 ● 이종옥(데레사) ● 이지연 ● 이채혁 ● 이치수 ● 이현희 ● 임현성 ● 전영화 ● 전정순 ● 정기옥 ● 정민주 ● 조맹기 ● 조은주 ● 조준희 ● 조지현 ● 최경희(데레사) ● 최선성 ● 최성희 ● 최승실 ● 최창림 ● 탁가현 ● 한서정 ● 한성진 ● 한수련 ● 한윤규 ● 황보근 ● 황숙화 ● 황숙희 ● 황순애 ● (주)삼성센터박재규 ● (주)삼성센터박정석 ● Jin Kyung Kim

■ 요셉의원

● 강문숙 ● 고종현 ● 고홍주 ● 공태현 ● 광경열 ● 권순성 ● 권영미 ● 김경연 ● 김경현 ● 김근영 ● 김미연 ● 김민정(베로니카) ● 김수정 ● 김수현 ● 김시연 ● 김신영 ● 김안진 ● 김애자(카타리나) ● 김연승 ● 김영란 ● 김영주 ● 김옥자 ● 김은철 ● 김재학 ● 김정현 ● 김정희 ● 김주찬 ● 김지영 ● 김지은 ● 김진우(베드로) ● 김진희 ● 김혜리 ● 김효송(친절한무관심) ● 김희진 ● 나현영 ● 노현주 ● 류승국 ● 류태영 ● 문재호 ● 박경호 ● 박선민 ● 박선영 ● 박성준 ● 박세숙 ● 박영구 ● 박종구 ● 박지선 ● 박현주 ● 배현덕 ● 백승진 ● 서경희 ● 서정은 ● 석연재 ● 선혜순 ● 손수경 ● 손승희 ● 손재윤 ● 송윤진 ● 송혜숙 ● 신권식 ● 신다영 ● 신아정 ● 심효진 ● 안수진 ● 안초롱



- 양성조 ● 양지선 ● 엄태련 ● 여주현 ● 오상목 ● 오인숙(멜라니아)
- 우해인 ● 유명수 ● 유재홍 ● 유정애(세실리아) ● 윤다혜 ● 윤소영
- 윤순자 ● 윤영득 ● 이기석 ● 이미숙 ● 이성원 ● 이수빈 ● 이승주 ● 이윤영
- 이은희 ● 이응수 ● 이재철 ● 이정화 ● 이채원 ● 이해원 ● 이해주 ● 이현중
- 이효진 ● 장유연 ● 장희원 ● 전영남 ● 정남숙 ● 정보영 ● 정수경 ● 정윤희
- 정진영 ● 정필연 ● 정현미 ● 조근형 ● 조유하 ● 조의영 ● 조하영 ● 주유현
- 지미영 ● 지은희 ● 천세은 ● 최경자 ● 표영애 ● 한승혜 ● 현석기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2024년 6월~7월)



■ 요셉나눔재단

- 잠실3동성당 ● (주식회사)화락 ● 흥은2동성당

■ 요셉의원

- (주)신길이앤씨 ● 비쥬앤로사 ● 신도림성당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4년 6월~7월)



- 강신걸·김선화(피스 오브 헤븐) : 계피 스펀지 케익 1상자, 유기농 빵 57봉지, 빵 64봉지 ● 김유순 : 감자 2상자, 옥수수 1상자 ● 김평옥 : 밤호박 4상자 ● 박문실 라우렌시오 : 제주 흑돼지 50kg ● 박희경 : 쌀 80kg, 미숫가루 5봉지, 복숭아 1상자, 수박 2통, 토마토 8상자 ● 사회복지법인 행복공학재단(김진석) : 쌀 40kg ● 상영재단 : 쌀 500kg ● 이*정(성남시) : 면(식품) 1상자 ● 익명 : 쌀 20kg ● 한몽술 : 빵 54봉지, 단팻빵 3상자 ● 행선*(과산군) : 옥수수 2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2024년 6월~7월)



- 김*옥(부산) : 신발 4켤레 ● 김*한(서초구) : 신발 8켤레 ● 김기태 안드레아·임선희 가밀라 : 의류 1상자 ● 김동길 마태오 : 신발 11켤레 ● 김로사 : 옷(상의 5점, 반바지 11점) ● 김주현 가브리엘라 : 의류 1상자 ● 노*옥(수원시) : 의류 1상자 ● 문영애 : 옷 1상자 ● 박*경(부산) : 신발 5켤레 ● 여의도성당 : 옷 1상자 ● 우*수 : 이불 6채 ● 윤*숙(화성시) : 옷 1상자 ● 익명 : 팬티 30장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2024년 6월~7월)



- 제일한방 : 한방파스 ● 하나제약 : 암로디핀 외 28종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 (2024년 6월~7월)



- 안젤라 수녀 : 손소독제 12개 ● 김은*(구로구) : 잡화(화분) 1상자 ● 박문실 라우렌시오 : 목욕 타올 100장, 수세미 550장 ● 박은경 : 생활용품 1상자 ● 정*숙(도봉구) : 마스크94 180매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본원 인사 발령



- 의료사업실 약제팀 : 조영이

(겸직)방문진료실/방문진료팀

- 의료사업실 치과팀 : 치과팀장 신기영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 사 : 김소연(내과) ● 유경보(내과) ● 박준성(안과) ● 홍세영(한외과) ● 일반의 - 인턴 : 양승조 윤민식 정호원 정지예(08.12부터)



- 간호사 : 김지후 김태형 박현영 전금숙

- 신학생 현장체험 : 청주교구 유주형(레오 08.06~11.29)

- 일반 봉사 : [약제팀] 덕성여대 2명 동국대 6명 숙명여대 4명

[치과팀] 3명

[목요급식봉사] 2명

[아웃리치] 18명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개인

- 사랑의집 ● 영등포쪽방주민 ● 종로쪽방주민 ● 토마스의집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4년 6월	1,328명
2024년 7월	1,592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4년 7월 말 현재)

756,224 명

“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4.06~07

필리핀요셉의원



김다술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학부모와 국내외 귀빈 참석해 기쁨 나눠 _ 장학생 종업식 행사 개최



인사말을 하는 박현선 필리핀 요셉의원 후원회장.

지난 7월 7일 필리핀 요셉의원은 장학생들을 위한 종업식 행사를 가졌다. 한국과는 달리 필리핀의 학기는 7월에 끝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즈음에 종업식을 갖는다. 이번 종업식 행사에서는 학기 동안 높은 출석률을 보인 학생들과 성적 우수 학생들을 시상하고, 특히 10년 간의 긴 학업을 마친 졸업생 한 명을 배출해 의미를 더했다.

유일한 졸업생인 와이어스(Wyeth)는 지난 1년간 장학생 대표로 활동한 모범생으로 “지난 10년간 요셉의원 장학생으로 뽑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많이 배웠다”며, “특히 장학생 대표로 지내는 1년 동안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어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

복음 묵상

'조금 더 멀리 보게 하는 것'

또 한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이곳 삶은 뜻을 품고 나서는 고통과 실망을 마주하고, 그러나 또다시 나아가는 일의 연속입니다. 결코 마음 편하고 잘 닦여진 길을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셉의원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장학생이 60여 명 있습니다. 장학생들은 매주 요셉의원에 와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초·중·고교생들이 수학과 영어를 배우는데, 대학생들이 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매주 있는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달마다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대학생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초·중·고 학생을 위한 수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당으로 치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되어 수업을 준비하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회의에 함께하고 또 그들 스스로를 위한 기도 모임과 심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누군가 주는 후원금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



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기 위한 첫 번째이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드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곧 요셉의원의 장학 프로그램은 단순한 학비 보조를 넘어서 추

가적인 공부를 통해 공부が必要な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후원 프로그램의 수혜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매주 출석이 필요한, 참여의식을 함양하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학생 교사들이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통상 수업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모일 일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장학금 지급도 방학 한 달 동안에는 중단됩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



왼쪽 사진은 김다솔 신부가 10학년 학생들과 함께 했다. 맨 오른쪽은 학생 대표인 와이어스.

사진 아래는 졸업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하는 와이어스.



으로 장학생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장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학년을 마무리하는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서, 이번 종업식에는 특히 한국에서 온 필리핀 요셉의원 후원회 박현선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 귀빈들이

이 참여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전날 필리핀에 도착한 박현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다솔 원장신부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과 봉사자분들이 너무 고생하며 훌륭한 일 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고, “우리 장학생들이 바르게 커서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겠다”고 격려했다.

며 요셉의원에서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다솔 원장신부는 종업식 식사에서 “하나를 끝맺음 하는 것은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라면서, “희망을 향해 계속 전진하자”고 학생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졸업생 대표 와이어스에게도 축하 인사를 전하며,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장신부는 이어 요셉의원이 앞으로도 지속적

을 하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참여 없이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저희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지난 3년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받는 책임감과 참여의식에 대해 누누이 이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찾아온 이들의 말은 무척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들은 엉뚱하게도 그달 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눈물을 앞세워 자신들의 가정형편이 힘들며 장학금을 받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냐고 부탁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순간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했지만,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후에 장학생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시는 수녀님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장학생들을 다시 소집하였습니다.

장학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걸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장학금을 받는다는 참여의식을 길러주고 싶었다. 그러니 아무런 참여 없이 단순히 너희들이 장학금을 받기를 기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런 참여 없이 말 한마디로 돈을 얻어내려는 것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이곳에 있지 말고 가서 일을 해라.”

이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실망감, 지난 3년간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걱정과 ‘더 잘할 수 없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교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했고, 제가 그렇게 실망할 줄 몰랐다는 내용을 듣고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앞으로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성실하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이곳 삶은 뜻을 품고 나서는 고통과 실망을 마주하고, 그러나 또다시 나아가는 일의 연속입니다. 결코 마음 편하고 잘 다녀진 길을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나마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갔다고 믿기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치과용 포터블 엑스(X)선 기기 도입 의 필요성이 높아 갔다. 특히 이번

필리핀 요셉의원은 지난 7월 치과용 엑스(X)선 기기를 도입했다. 그동안 이곳에서의 치과 치료는 현지 치과 의사가 간단한 발치 위주로 진행해 왔다. 이곳의 치과 진료는 한국과는 다르게 신경치료나 충치를 때우는 치료가 아니라 대다수가 단순 발치이고, 또 환자들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발치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종 치아 뿌리의 형태 때문에 발치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이 있고, 또 발치뿐 아니라 신경 치료나 때우는 치료의 건수가 늘어감에 따라 치과용 엑스선 장비 도입

도입에는 영등포 요셉의원에 진료를 나가면서 필리핀 요셉의원에도 1~2개월마다 방문하고 있는 치과의사 박상우 선생의 도움이 컸다. 여러 진료 상황에서 환자의 고통과 진료 시간을 덜어주기 위해 치과 엑스선 기기 도입 사업에 힘을 썼고, 또 직접 필리핀까지 엑스선 기기를 자진해서 운반하기도 했다. 김다솔 원장신부는 “치과용 엑스선 기기 도입으로 치과 의료진의 어려움을 한층 덜 수 있고, 환자들도 고통을 줄이고 더욱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열정과 성장이 빛난 순간’ 본원 개최 영어 말하기 대회

필리핀 요셉의원은 지난 7월, 6개월 동안 준비해온 영어 말하기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필리핀 전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참여해 두 번의 예선과 한 번의 패자부활전을 거쳐 최종 10명이 결선에서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각자가 선택한 사회 문제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영어로 정리하고 암기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경연을 치렀다. 심사위원으로는 요셉의원의 김다솔 원장신부,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의 레나 수녀와 캐롤 수녀가 참여했다. 특히, 호주 출신의 캐롤 수녀는 영어 원어민으로서 학생들이 영어로 연설을 준비하고 평가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대회를 준비했다. 실제로 예선에서 탈락한 학생들 가운데 패자부활전을 통해 결선까

지 진출한 경우도 있어서, 학생들의 끈기와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대회에서 입상한 상위 세 명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주어졌고, 우승자인 프랑코(Franco)는 “준비 과정이 재미있었고 대회를 통해 영어 실력이 많이 성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영어 말하기 대회는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학생들의 열정과 성장이 빛난 이번 대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려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의 동기와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다솔 원장신부와 캐롤 수녀가 성적 우수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맨 가운데가 1등을 한 프랑코.

+ 2024년 6월~7월 신규 후원 회원(9명)

- 박선주 ● 박수진 ● 양정호 ● 양현숙 ● 이미숙
- 이시연 ● 전성임 ● 주은경 ● 익 명

+ 2024년 6월~7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1,598명 ● 급식 849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 (2024년 7월 현재)

- 진료 101,356명 ● 급식 492,390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미사
안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7:1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2024.06~07

홈씨 국제성경시도직후원회 소식지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국성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앞날을 비춰주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90개 넘는 공소에 성경이 거의 없어요” 볼리비아 ‘산타 로사 델 사라’ 지역 선교사 지원 요청

안녕하세요, 국성회 회원 여러분. 성가소비녀회 총원 소속 김영미 야곱 수녀입니다. 저희는 현재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주 ‘산타 로사 델 사라’ 본당 관할인 로스 안데스 공소에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본당이 관할하는 90개가 넘는 공동체 중 한 곳입니다. 시내 중심지로부터는 5시간 그리고 본당에서는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콩, 쌀,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작농이거나 일일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본당 산타 로사 델 사라는 90개가 넘는 공동체를 교구 사제 혼자 돌보다 보니 1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성호경조

차 제대로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본당에서 가까운 몇 개의 공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소들이 12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교님들은 이곳의 심각성을 잘 아시고 저희들을 파견하셨습니다.

저희는 각 공소를 방문해서 첫영성체와 견진교리를 시작하였고, 세례 및 혼배 교리 교육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다 보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 위는 국성회가 2022년에 후원한 볼리비아 콘셉시온 지역에서의 미사 장면. 아래는 볼리비아 콘셉시온 지역 신자들이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

성경책을 접해본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격도 비싼데다 최소한 5시간 이상은 차로 이동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구입하라는 말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콰드르에서 선교하고 계신 수녀님을 통해 국성회에서 성경책을 후원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반가움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90개가 넘는 공동체에 단 몇 권의 성경책이라도 비치해 놓고 읽게 하고 싶지만, 적어도 앞으로 교리공부를 진행할 30개 공소이라도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요청드립니다.

지원이 성사되면 아이들의 교리교육을 통해 성경에 대해

자세히 알도록 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쓰는 습관을 들일 계획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면화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 성경책을 어려서부터 읽게 해서 성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말씀을 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킬 생각입니다. 성경을 알아감으로써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해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성가소비녀회가 사목하는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주 ‘산타 로사 델 사라’ 로스안데스 공소지역 (타원 표시)



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생태통합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볼리비아에서 김영미 야곱 수녀 드림

☞ 2024년 6월 18일 김영미 수녀에게 현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스페인어 성경 200권을 후원하였습니다.(\$4,571=6,377,000원)



[선교 현장에서]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 진자 지역 사목이야기

“종교 달라도 서로 도우며 잘 지냅니다”



우간다 진자 지역에서의 미사. 사진 오른쪽은 주일학교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톳짱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의 여혜화 베네딕다 수녀입니다. 국성회에서 주신 도움에 감사드리며, 아프리카 선교

지의 삶을 일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 우간다는 케냐, 탄자니아, 콩고, 르완다와 남수단으로 둘러싸인 동아프리카의 내륙국으로,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30년 간 살고 있는 진자(JINJA)는 빅토리아 호수 자락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집트 나일강의 원천이 솟아오르고 푸른 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기후는 소나기가 잠시 쏟아진 후에 곧 햇빛이 비치는 상쾌한 곳으로 어느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돌을 심어도 싹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기름지다고 합니다.

저희는 진자 교구장님의 요청으로 이곳에 진출해 진료소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교육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면 가난한 이웃 아이들이 호수가를 배회하는 것을 보고 저희 지원자 한 명이 그 아이들을 이곳에 불러 하느님을 알려주고 싶다고 해서 주일 오후에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 누나의 등에 업혀 있던 아기가 갑자기 소리내어 울기에 물어보았더니 아침부터 오후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파 운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진료소에서 매주

주일마다 먹을 것도 사주면서 지금은 종교를 초월한 주일학교가 되었습니다.

매 주일의 자유시간을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바친 결과, 해마다 타 종교에서 개종한 세례자들의 세례식과 첫영성체를 받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이 나라에서는 종교가 없는 사람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무슬림, 개신교, 혹은 가톨릭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곳 진자의 번두리는 무슬림이 많은 곳인데, 비록 종교가 다르지만 서로 도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톨릭으로 영세를 받고 싶어하면 보통은 부모님들이 주저하면서도 허락을 하십니다.

25년이 지난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란 아이들 가운데는 벌써 우리 진료소에서 일하는 간호원도 생겼습니다.

어느 에이즈 부모님의 네 아들들의 이야기를 끝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동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가난한 아버지가 에이즈에 걸려 비닐을 덮고 땅에 누워 햇빛 아래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진료소로 데려와 가장 좋은 약으로 무료 치료를 했더니 건강이 점차 좋아졌습니다.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료소로 들어오는 길의 잡초 뽑는 일을 맡겼더니 매일 아침 네 명의 꼬마 아이들이 아버지를 도와 함께 일했습니다. 얼마 후 에이즈 증상이 다시 나타나 진료소에 입원 침대를 만들어 우리 수녀님들과 함께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환자는 더 이상 자신을 살릴 생각 말라며, 자기는 우리 수녀님들의 사랑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기쁘게 하느님 곁으로 떠난다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간 후에도 네 아이들은 아침부터 스스로 잡초를 뽑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어머니는 우리 수녀원 농장 직원이 되었습니다. +

2024년 5월 13일 김계숙 수녀 드림

☞ 2021년 3월 18일 우간다 진자 교구 문화연구센터에 매일미사 합본 1,500권 인쇄비 \$14,540(=16,442,552원)을 지원했습니다.

+ 국성회 지원 내역(2024년 6월~7월)

☞ 06/18 볼리비아 선교 김영미 야곱 수녀(성가소비녀회)에게 현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스페인어 성경 200권 지원 (\$4,571=6,377,000원)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 (2024년 6월~7월)

●강석철 ●강은영 ●강화정 ●고도원 ●고동현 ●고현수 ●고현주 ●곽순용 ●곽혜숙 ●곽효민 ●구경모 ●구민영 ●김경준 ●김경희 ●김광자 ●김금재 ●김기연 ●김덕순 ●김동화 ●김만길 ●김명신 ●김명희 ●김미교 ●김미현 ●김범준 ●김병희 ●김석주 ●김선옥



- 김성권 ● 김성중 ● 김수미 ● 김수현 ● 김여진 ● 김영추 ● 김영환 ● 김윤순 ● 김은숙 ● 김정연 ● 김정임 ● 김정화 ● 김진숙 ● 김진우
- 김태규 ● 김태남 ● 김태성 ● 김태희 ● 김해숙 ● 김현경 ● 김현숙 ● 김현준 ● 김현호 ● 김형주 ● 김혜숙 ● 김효섭 ● 김희수 ● 나삼균
- 도성록 ● 류연자 ● 류지한 ● 류혜선 ● 문경호 ● 문순자 ● 민영진 ● 박금애 ● 박병윤 ● 박성하 ● 박세희 ● 박소향 ● 박수진 ● 박순
- 박언빈 ● 박영훈 ● 박재우 ● 박지영 ● 박창희 ● 박춘옥 ● 박향순 ● 박혜숙 ● 박화영 ● 박효종 ● 배광익 ● 배보윤 ● 배소영 ● 배창희
- 백영희 ● 사공일 ● 서현동 ● 서희자 ● 성정인 ● 성효인 ● 손소영 ● 손필숙 ● 손현재 ● 송미경 ● 송보영 ● 송재욱 ● 신해경 ● 양기라
- 양영실 ● 양창호 ● 염지유 ● 오세형 ● 오소연 ● 오승웅 ● 오영남 ● 오영신 ● 위원량 ● 유승영 ● 윤영순 ● 윤영찬 ● 윤용식 ● 윤창현
- 이강득 ● 이강림 ● 이건창 ● 이규성 ● 이금희 ● 이미순 ● 이미용 ● 이보경 ● 이상숙 ● 이상현 ● 이석재 ● 이승현 ● 이영선 ● 이영희
- 이용순 ● 이용애 ● 이용우 ● 이원석 ● 이일호 ● 이임득 ● 이장순 ● 이재림 ● 이재익 ● 이정희 ● 이종대 ● 이종상 ● 이주현 ● 이준호
- 이종환 ● 이지윤 ● 이진수 ● 이학천 ● 이향희 ● 이현옥 ● 이현창 ● 이해순 ● 이해연 ● 이희우 ● 임선영 ● 임순태 ● 임진수 ● 임한미
- 장민정 ● 장선화 ● 장수진 ● 장이태 ● 장혜정 ● 전대영 ● 전명희 ● 전성인 ● 전소연 ● 전 숙 ● 전유민 ● 정수자 ● 정영길 ● 정영
- 정은주 ● 정재숙 ● 정진영 ● 조경연 ● 조덕순 ● 조무건 ● 조성미 ● 조소연 ● 조주연 ● 조하영 ● 조현순 ● 주현수 ● 지태근 ● 진수은
- 최경의 ● 최두혁 ● 최명옥 ● 최문송 ● 최영연 ● 최영자 ● 최종숙 ● 하금태 ● 하상옥 ● 한나진 ● 허 근 ● 허봉희 ● 허순덕 ● 홍성실
- 홍지원 ● 황세희 ● 황영희 ● 황태운 ● 황현주 ● 황현지 ● 진석실업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2024년 6월~7월)

- 김경식 ● 김원호 ● 나종진 ● 박민재 ● 박우준 ● 서상범 ● 신현박 ● 오창선 ● 유경춘 ● 이계호 ● 이문주 ● 임상무 ● 정순택 ● 조인기
- 최광희 ● 최명근 ● 최정훈 ● 한정화 ● 홍근표 ● 익명희망자

+ 신규 후원회원 - 일반(2024년 6월~7월)

- 오덕주 ● 유영희 ● 이지연 ● 최수정

+ 국성회 후원 방법

1. CMS 신청

-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연락하셔서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 신청자의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신청자 본인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월 출금액, 출금을 원하시는 날짜(1일/10일/25일)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와 은행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의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합니다.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국민은행	364301-04-106412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2024년 6월~7월
후원금 내역 : 23,590,000 원



2024년 9월 후원회 미사 알림

일시 : 2024년 9월 10일 (화) 오전 11시
장소 : 요셉의원 3층 경당(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교통 :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문래동 쪽 200m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 마태오 18,33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7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
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
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2-2637-7258)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
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
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2-2637-7258)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
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604-557810	요셉나눔재단법인
국민은행	364301-04-236621	요셉나눔재단법인

■ 위의 계좌 이외에 기존에 납입하고 계신 요셉의원 계좌도 유효합니다.

요셉의원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목욕서비스

시간 매일 오후 1~3시 남성
3~5시 여성
장소 1층 목욕실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3~5시
장소 1층 로비



식사 나눔 (목요일)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장소 1층 식당



옷 나눔

시간 요정에 따라 수시로
장소 1층 현관



법률상담

상담 예약 문의 전화 070-4688-3413
(오후 1시~5시 전화 연결 가능)



영화포럼

시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미사지향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